

# 원산지 부정유통 ‘꼼짝마’

### 전북농관원, 설 명절 유통 성수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 이하 '전북농관원')이 다음달 10일까지 설 명절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산물 선물세트와 제수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 품목은 선물용 농축산물(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등)과 제수용품(밥, 대추, 고사리 등) 등이며,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와 일반 농축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전북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로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날로 지능화되는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심품은 시료를 채취해 원산지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TV홈쇼핑·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체, On-off line 유통업체, 제수·선물용 제조·판매업체,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포인트 단속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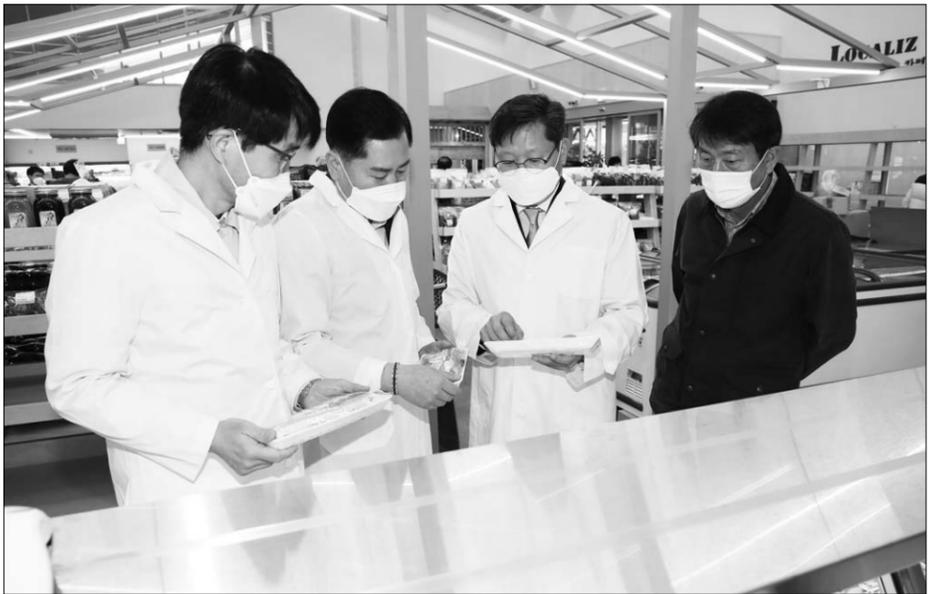
실시한다.

이울러, 이번 설 명절 성수품 원산지 일제단속과 병행해 최근 AI 확산 및 코로나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계란에 대해서도 원산지 등 유통상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5~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윤상기자



전북농협은 검사국과 합동으로 오는 2월 14일까지 도내 240여개 계통사업장의 설 명절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 설 명절 '먹거리 안전' 위해

### 전북농협, 검사국과 합동으로 도내 사업장 식품안전 집중 관리 세스코 등 위탁점검기관과 자체점검반 병행 운영 현장 모니터링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검사국(국장 이문규)과 합동으로 오는 2월 14일까지 도내 240여개 계통사업장의 설 명절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해 각 사업장별로 식품안전 관리자를 지정·운영해오고 있으며,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 설 명절 대비 식품안전 특별상황실을 운영한다. 특히, 식품 보관 온도 유지, 유통기한 준수, 축·수산물 작업장 위생관리 등 각 매장별 점검관리 사항에 대해 지도를 강화하여 식품의 신선도와 안전성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위탁점검기관(세스코)과 자체

점검반을 병행 운영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겨울철 많이 발생하는 노로 바이러스 식중독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 조리 전과 화장실 사용 후 손 씻기와 어패류는 1분 이상 완전히 익혀 먹기를 안내하고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농산물 안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농협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매장의 식품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디지털트윈 in 전주 '주목'... LX, 팸투어 실시

### 마누엘 알버레스 "더 스마트해진 전주 다시 찾고 싶어" 김기승 부사장 "올해 보완해 '한국형 뉴딜 모델'로 안착"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가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트윈'을 외신들에게 시연하는 팸투어를 개최했다.

LX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전주시가 주관한 LX 디지털트윈 팸투어는 지난 26일 오후 4시 전주 LX 본사에서 진행했다. (본보 1월 27일자 4면)

'디지털트윈으로 만나는 전주'를 주제로 한 팸투어에서는 싱가포르·미국·프랑스 등 11개국 14개 매체의 대면·비대면 외신을 대상으로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시민 체험형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번 팸투어에서는 '디지털트윈 실증모델'이 구축되는 과정에 대한 시연과 설명이 이뤄졌고, 영국 저널리스트이자 前 TBS의 'This morning' 진행자인 알렉스 켄슨이 사회를 맡아 외신 기자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전주명예시민 자격으로 비대면

팸투어에 참여한 마누엘 알버레스(前 영국항공 한국지사장)는 "전주 디지털트윈으로 더 안전하고 스마트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전주를 다시 찾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10대 대표 과제의 하나로 '디지털트윈'을 포함시켰다. '디지털트윈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등 신기술을 바탕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 신산업의 혁신,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 디지털 인프라이다.

이에 따라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국토·도시 문제를 해결을 위한 '서비스 모델'을 구체화하고, 실제 도시행정 업무에 적용시켜 효율성을 실증하는데 관심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트윈 in 전주'는 2018년 8월 LX와 전주시가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MOU를 계기로 추진되었다.

/김윤상 기자

LX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전주시 효자동 일대(약 16km) 지상·지하의 고정밀 3차원 지도를 구축하고, 도시행정 서비스 모델을 기획했다. 이어 2019년 8월부터 2020년 11월 까지 시민·공공·전문가와 함께 도시행정 서비스 모델 8개를 확정하고, 3차원 지도에 각종 도시·행정·민간 데이터를 융합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올해 12월에는 8개 도시행정 서비스 모델을 전주시 실제 행정에 적용하고 실증할 예정이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LX 김기승 부사장은 "'디지털트윈 실증모델'은 시민·공공·전문가와 함께 만든 전국 최초의 도시행정 서비스 모델"이라며 "올해 이를 보완·확대해 '한국형 뉴딜 모델'로 안착시키고 이를 전국 차차단체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00M을 통해 행사와 기술 전시 내용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김윤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코로나19 발생 1년... 농업부문 어려움 극복 매진

### 농진청, 농업경영체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온라인 농업기술 공유 체계 구축 등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코로나19 국내 발생 1년을 기점으로 그간 농업부문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추진한 사업들을 점검하고, 2021년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27일 밝혔다.

농진청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소규모 가공·농촌체험 경영체, 청년농업인, 강소농 등이 생산한 우수 농산물과 가공품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했다. 코로나19로 졸업식·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원격수업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판로가 막힌 화훼농가와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를 돕기 위한 농산물 소비촉진 운동을 펼쳐 1억 3300만 원 가량의 농산물을 구매해 바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농축산물과 관련된 날을 기억하고, 적극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산물의 날(리마인드 농산물데이)' 홍보활동(캠페인)을 펼쳐



'농사리' 기반 한시적 누리집 '착한쇼핑'

다. 특히 농산물의 날 홍보활동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와 결합해 상생의 가치를 전파했다. 또한 농업부문의 국민 근로자 입국 감소 등 농촌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짐에 따라 5~6월 농번기와 9~10월 수확기에 맞춰 농촌일손 돕기를 추진했다. 더불어 '생활 속 거리두기' 강화

로 위축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위생과 안전을 지키고, 소규모 관광을 실천하는 안전한 농촌체험·관광사업장을 241개소 선정했다. 또 '작은 여행', '비대면', '힐링' 등 새로운 유행을 반영한 농촌형 식사·체험·숙박 기획 상품(우리 농촌갈래?)을 여름 휴가철(6~8월)을 겨냥해 16개 운영하며 농촌 활력을 도모했다.

비대면으로 영농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 정보공유 시스템(http://www.rda.go.kr/axis)'을 구축해 중앙-지방농촌진흥기관이 온라인으로 농업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농촌진흥청 코로나19대응영농기술 지원반 노형일 반장은 "지난해 추진한 농산물의 날 홍보활동과 민간유망기업과 연계한 농산물기획전 등은 올해도 지속하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중소 조달업체에 각종 대금 조기 지급

### 조달청 설 명절 민생지원대책

조달청(청장 김경우)이 설 명절을 맞아 건설근로자 임금 조기 지급 등을 포함한 민생지원대책을 27일 발표했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겨울철 많이 발생하는 노로 바이러스 식중독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 조리 전과 화장실 사용 후 손 씻기와 어패류는 1분 이상 완전히 익혀 먹기를 안내하고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농산물 안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농협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매장의 식품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원의 공사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조달기업이 계약대금의 최대 80%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금을 명절 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도 신속하게 처리한다.

조달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근

로지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납품기한 조정도 추진한다. 명절 연휴(2월15~17일) 직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것은 6100여건, 약 2400억원으로 파악된다. 조달청은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차질이 없는 경우 2월 23일 이후로 납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이상훈 기획조정관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면서 "공공조달이 기업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기업에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북서남상의, 기업체 설 명절 상여금 지급실태 조사

전북서남상공회의소(회장 김적우)는 2021년 설 연휴(2.11~2.13)를 앞두고 관할지역(정읍·김제·고창·부안)에 있는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 명절 기업체 공경가치 및 상여금 지급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100개 기업 중 95개 업체가 일요일 포함 4일 휴무한다고 답했으며, 5개 업체는 주문량과 설비유지를 위해 공장을 가동한다고 답했다.

상여금 지급 질문에는 지급한다 60곳, 지급을 안 하거나 미정인 업체가 40곳으로 나타났으며, 지급을 못하는 이유는 연봉에 포함 35곳, 매출감소 및 자금부족 5곳으로, 각각 조사됐다. 지급수준에 대해서는 기본급 대비

50% 지급한다 49곳, 100% 지급 6곳 업체, 기타 및 10~30% 지급한다는 곳은 5곳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재 체감경기를 묻는 질문에는 95개 업체가 '갈겨나, 악화됐다'고 답했으며, 작년에는 85개 업체가 '갈겨나, 악화됐다'고 답했다.

이에 김적우 회장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지급 미정인 업체가 조사에 나타난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본다며, 설상가상 코로나 까지 더해 기업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며, 해외에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하반기나 돼야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것 같으며, 더불어 경제도 함께,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정윤=김태환 기자



## "코로나19 극복 함께 합시다"

### 적십자 전북지사, 취약계층 대상 마스크 110만여장 배포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재난취약계층을 위해 총 111만3천 장의 마스크를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전북지사에는 제이엑스(대표 황석진)·제이엑스테크(대표 이연서)에서 기증한 마스크 50만 장과 한국도로공사(대표 김진숙) 기증 마스크 61만3천 장을 더해 총 111만3천 장의 마스크가 전달됐다. 이중 한국도로공사 기증 50만 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던 지난 연말 행정기관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등 방역 취약계층에게 먼저 지원됐으며, 나머지 61만3천 장은 이번주에 집단감염 취약시설 및 고위험시설인 노인요양원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 전북 적십자사는 코로나19 유행과 확산기가 겹쳐 고통 받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을 위해 1월 초 운영매트 300매를 지원했으며, 코로나19 비상실각 사태 2000세트를 금주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이선홍 지사회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도민들이 힘든 가운데 더욱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을 취약계층이 고통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며 "적십자사는 항상 도민을 위해, 고통이 있는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농촌진흥청은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차량을 구매해 27일 군산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모세스영아원'에 전달했다.

## 농진청,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차량 기증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차량을 구매해 27일 군산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모세스영아원'에 전달했다.

이번 나눔 활동은 지난해 전주시 소재 노숙인 생활시설인 '전주사랑의집'에 차량을 기증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농진청에서 열린 차량 전달식에는 허태웅 청장과 분청 실·국장, 모세스영아원 원장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농진청은 지역사회의 복지시

설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허태웅 청장은 "영유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증차량이 요긴하게 쓰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차량기증이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